

붙임1.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3.8 여성 1만인 선언> 전문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3.8 여성 1만인 선언>

2025년 3.8 여성의 날을 맞이한 우리는 12.3 내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이 광장에서 민주공화국의 당당한 여성이자 시민으로서 선언한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광장을 지키는 여성들이다.

우리는 나와 내 삶을 둘러싼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가장 먼저 광장으로 쏟아져나와 민주주의를 지킨 여성들이다. 광장을 지키는 대한민국 여성의 역사는 1919년 3월 1일의 여성들이 손에 쥐었던 태극기에서 2017년의 촛불과 2025년의 응원봉으로 도도히 이어져왔다. 우리는 앞으로 그 어떤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민주공화국의 당당한 주권자로서 위기 극복의 광장 맨 앞줄에서 나와 동료 시민들이 살아갈 이 나라를 굳건히 지킬 여성들이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광장을 바꾸는 여성들이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모두의 광장이 여성과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얼룩질 때, 권력의 실정을 비판해야 할 단상의 마이크에서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여성혐오가 다시 한번 울려퍼질 때, 서로에 대한 신뢰 위에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가장 작은 주권자의 목소리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토론하고 설득하며 광장을 바꿔온 여성들이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를 바꾸는 여성들이다.

2017년, 광장의 시간이 끝나고 선거의 시간이 시작되자 촛불 광장의 주역으로 상찬받던 주권자 여성의 외침이 이리저리 공격받고 외면당한 그 당혹스러운 시간을 우리는 기억한다. 여성은 광장을 지켰지만 정치는 여성을 지키지 않았다. 정치가 외면한 구조적 성차별과 성폭력의 굴레는 고스란히 일상의 여성들이 감당할 땐으로 되돌아왔다. 구조적 성차별과 성폭력에 맞서 싸우는 여성들의 외침에 정치는 오히려

싸우는 여성을 문제라고 낙인찍었다.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광장의 힘으로 정치를 바꾸기로 결심한 여성들이다.

광장의 여성을 외면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여성의 고통을 외면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아내 밟는 자 나라 밟는다!’던 1950년대 여성 운동가들의 외침을 이어받아 2025년의 우리는 이렇게 외치고자 한다. “여성 밟는 자 나라 밟는다!”

위헌적 계엄령과 친위 쿠데타로 내란을 일으킨 내란수괴 윤석열의 정치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망언으로 대표되는 반여성정치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윤석열의 퇴진은 반여성정치의 퇴진이다. 민주주의의 회복은 성평등정치의 귀환이다.

오로지 자신의 권력을 위해 ‘여성가족부 폐지’를 외쳤던 윤석열의 정치, 학교의 불통에 저항하는 동덕여대 학생들과 서부지법폭력사태의 극우시위대를 등치시키며 여성혐오를 멈추지 않는 이준석의 정치,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를 끝없는 2차 피해의 늪으로 밀어넣는 안희정의 정치, 남성 권력에 기대어 불법적 특권을 누리며 여성의 이름을 부패의 방패로 앞세우는 김건희의 정치, 이 모든 반여성정치와 단호히 결별하고 오랫동안 방치된 성평등 정치의 귀환을 선언할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비로소 바로 설 수 있다.

우리는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광장을 지키고, 바꾸고, 나아가 정치를 바꾸는 주권자 여성으로서 분명히 요구한다.

헌법재판소는 반여성정치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반헌법적 계엄과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위협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검찰은 배우자의 권력 뒤에 숨어 사법질서를 비웃고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력을 휘두르며 국정을 농단한 김건희를 수사하라!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동료들에게 호소한다.

모든 여성과 모든 시민의 인간답고 존엄한 삶을 지키고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여성정치를 향해 굳건히 나아가야 한다.

광장을 빛낸 응원봉의 여성정치는 모든 여성과 모든 시민을 위한 정치적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의사봉의 성평등정치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치열하게 대화하며 민주주의를 위한 여성들의 연대를 담대하게 열어가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세상을 바꾸는 여성들이여, 연대하라! 단결하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광장에 모인 우리 여성들의 단결과 연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오랫동안 미뤄져온 헌법 제 11조의 평등의 약속이 모든 여성과 시민의 일상에 살아숨쉬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2025. 3. 8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3.8 여성 1만인 선언